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및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 ZUCKER 박사, 연방 CMS 지침에 따른
양로원 방문 개장 지침 발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양로원 모든 거주자 방문 허용

보건부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오늘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U.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가 최근 발표한 지침에 맞추어 새롭게 개정된 양로원 방문 지침을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즉시 발효되며, 일부 지역사회 감염이 높은 지역 및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의 백신 비접종 거주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또는 분리 중인 자를 제외하고 모든 방문자에 대한 방문이 언제나 허용됩니다. 시설은 반드시 강력한 수준으로 감염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로원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과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안전하게 만나는 일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 가지의 유효한 백신이 있으며, 이제 장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 사례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입장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지역사회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로원의 확진 사례는 연휴 이후 코로나 2차 웨이브가 닥친 1월 중순 피크에 비하여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는 모든 시설에서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간호 방문(Compassionate Care)은 과거 모든 시설에서 언제나 가능했으며, 새로운 지침에 따라 계속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보건부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어려웠던 지난 해 이 지역사회가 가족과 분리되어 감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설에서 계속 강력한 감염 통제 규정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가족의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 지침은 14일간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2월 23일 지침을 대체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